

따뜻하고 편안한 엄마의 품처럼,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이성미 보건관리자

글·사진 박민승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 사내기자

사명감을 지키고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은 이성미 보건관리자의 오늘을 만드는 원동력이다. 자신이 돌보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품어야 한다는 것이 그가 말하는 사명감과 책임감. 19년을 꼬박 산업간호사로서의 소신을 지켜나가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성미 보건관리자를 만났다.

이달의 한마디

“산업보건은 따뜻하고 편안한 엄마의 품 같아야 한다”



항공기 엔진 GLOBAL NO.1 PARTNER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건강 지킴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최대 항공기 엔진 제조기업으로, 2022년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엔진을 제작하면서 일반에 잘 알려졌다. 1979년 가스터빈 엔진 창정비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 가스터빈 솔루션을 제공해 오고 있다. '안전·환경·보건'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영 최우선 가치로, 환경안전팀은 각자의 역량을 총동원해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구축해가고 있다. 그중 이성미 보건관리자는 노동자의 '건강 지킴이'를 자처한다. 노동자의 건강검진, 유소견자 사후관리, 건강증진활동을 전담하고 있는데, 심혈관계 질환자나 대사증후군 질환자를 위한 '3GO(건강 습관 올리고! 혈압·혈당·중성지방 줄이고! 허리둘레 줄이고!) 캠페인'은 노동자의 큰 호응을 이끈 활동 중 하나다.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전문가가 찾아가는 현장 체조', 근골격계 부담 공정의 유소견자 대상 '바른 몸 운동교실'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또한 85dB 이상 소음에 노출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 번 자체 청력검사 및 귀마개 밀착도 검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귀마개를 지급하는 등 노동자 청력 보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내공을 탄탄히 만든 힘! 보건관리자로서의 사명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촘촘하면서도 특색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이성미 보건관리자의 탄탄한 내공에서 발휘된다. 2005년부터 올해까지 꼬박 19년을 산업간호사로서 자리를 지켜왔는데, 산업간호사로 첫발을 댄 곳은 ‘대한산업보건협회’였다. 그는 협회에서 특수건강검진 기초와 보건 관리 대행을 하면서 현장을 익혔다. “협회에서 만난 수천 명의 노동자와 다양한 사업장에서의 경험이 뿌리가 되어 지금의 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산업보건의 기초를 알려준 대한산업보건협회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지요.”

현재 이성미 보건관리자는 직업건강간호협회 경남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대한산업보건협회 및 다양한 사업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신규 보건관리자에 전수하고 있는데, 후배들이 하루빨리 사명감을 지닌 보건관리자로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보건관리자는 진정성 없이 쉽게 생각하면 절대 오래 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일단 보건관리자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산업보건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노동자에게 우수한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건강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보건관리 업무는 실적이 바로바로 나오는 일도 아니고, 혼자 외롭게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성미 보건관리자는 “그럼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다 보면, 그 어떤 직업에서도 찾을 수 없는 재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후배 보건관리자들을 향한 애정 깊은 조언도 빠트리지 않는다.

항상 노동자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연간 보건관리 업무를 계획하고 실행, 평가,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혼자서 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해야 할 일이 많아지며,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법적 업무를 해나가야 하기에 그에 따른 책임감도 막중하다.

“우리 회사의 의료인 보건관리자는 저 혼자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 동시에 보건관리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요. 하루 평균 20여 명의 노동자가 상처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받으려고 건강관리실에 방문하시고, 그 외 수시로 건강상담을 위해 찾아오세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건강관리실은 항상 개방되어 있다. ‘건강관리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이성미 보건관리자 신념 덕분이다. 까닭에 노동자들은 보고 절차나, 예약 없이도 수월하게 건강관리실을 방문한다.

“노동자들이 업무상 건강 문제를 편안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노동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품어주는 것이 보건관리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예방적 관점에서 노동자를 바라볼 때 회사 보건관리 정책도 발전하는 법이죠.”

‘산업보건은 따뜻하고 편안한 엄마의 품 같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성미 보건관리자. 그의 진심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퇴직을 하는 노동자들은 꼭 이성미 보건관리자를 찾아와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앞으로도 이성미 보건관리자는 마음속 간직한 사명감을 매일 되뇌며, 하루하루를 마주한다는 다짐이다. 🐼

이성미 보건관리자

2005~2006

종합병원

2006~2015

산업보건전문기관
(대한산업보건협회 창원센터)

2015~2016

중견기업 보건관리자

201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건관리자

